



북소리를 통해 하늘 아래 수많은 소리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라는 메시지를 담은 소리극 '천고'.

언어는 가라!

■ '넌버벌 페스티벌' (9월1~25일, 국립극장내 하늘극장)

인간 내면세계 춤 소리로 표현, 야단법석 등 한국식 신명 펼쳐

첫 번째 공연인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9월 1~4일)은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 전통의 양식으로 풀어낸 독창성이 돋보이는 공연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스님들의 좌중우돌 수행기를 통해 자아성찰이라는 교훈적 주제와 대중적인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열댓보면 스님들이 나와 단순한 두드림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음악적 완성도와 심오한 주제가 내포돼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동양의 정신 문화를 상징하는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타악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11일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있고 지내는 주변의 소리를 화려한 몸짓과 두드림으로 표현한다. '천고'는 북을 통해 오감을 찾는 하나의 수행이다. 공연기획사인 D&D의 박재순 대표는 "북의 내면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공연 의도를 밝혔다. 결국 '하늘 아래 소리 천고'는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소리에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담아보라고 설득하는 작품이다.

세번째 순서는 문화마을 들소리의 '집단 신명 퍼포먼스 타오' (9월 15~18일). 원시 종합축제의 신명을 재현하는 무대로 공연 제목인 '타오'는 노장사상의 근본인 도

(道)의 중국 발음이다. 잘 놀아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건강한 문화를 지향하는 퍼포먼스다. 특히 이 작품은 국내외에서 매년 200여차례 공연될 만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얼마전 막내인 싱가포르 아츠 페스티벌의 폐막제에서 2만여 관객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고, 유럽 공연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 무대는 극단 달판춤이 '강만홍의 두타' (9월 22~25일)로 장식한다. '두타'는 탐욕과 망상을 버리라는 뜻으로 신체 움직임만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몸짓무용극이다. 99년 창단된 달판춤은 지리산 청화동 삼성궁과 삼각산을 오가며 공연해왔으며 최근 뉴욕 라마타 극장의 초청으로 공연하기도 했다. (02)744-030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넌 버벌 퍼포먼스 (Non-verbal Performance: 비언어극)란?

20세기 예술의 여러 장르와 횡적으로 관계되는 독특한 행위 예술을 가리킨다. 즉 연극이지만 공연자가 어떤 인물로 분장해서 연기 하거나 연기자 자신이 극적 의미를 가진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독립된 신

즉흥적이고 독립된 동작 연출

체적 동작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극적 행위를 포함한 오페라와도 다르며, 단순히 동작을 수반한 음악 행위를 보여줄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시각과 청각, 운동 감각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한마디로 말해 넌버벌 퍼포먼스란 노래나 연주 등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독립된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왜 넌버벌 퍼포먼스에 열광하는가?

리듬과 비트, 자유분방한 춤이 중심인 넌버벌 퍼포먼스에 요즘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다. 96년 내한한 '스팀프'가 지닌 넌버벌 퍼포먼스의 불꽃은 97년 만들어진 '난타'로 타오르기 시작해 올해 '멜라 구아다'와 'UFO'에 이어 이스라엘의 '마유마나'까지

기발한 아이디어에 빠른 리듬

가세하는 등 넌버벌 퍼포먼스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계의 타악 연주그룹 '야단법석'과 전통 사물놀이들 바탕으로 한 그룹 '두드락', '도깨비 스톱' 등도 넌버벌 퍼포먼스 열풍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같은 넌버벌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난타'. 97년 이후 계속 공연되

면서 강남과 강북에 각각 전용관을 세우고 휴일도 없이 관객들의 감동을 '난타'하고 있다.

'난타'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7개국, 118개 도시에서 2660여회를 공연. 현재 총관람객 수 138만여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넌버벌 퍼포먼스의 열기에 대해 공연전문가 박창수씨는 "정보화시대의 특징인 빠른 속도에 부응하는 넌버벌 퍼포먼스는 신세대들 중심으로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연예술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비트있는 리듬과 춤이 결합한 넌버벌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시 종합축제의 신명을 재현하는 집단퍼포먼스 '타오'.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타악 뮤지컬로 표현한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공연 모습.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전지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Set-12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탄허스님의 육성 강의를 드림니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중사게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 하 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시요!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 창간 10주년을 맞아, 제2 창간을 실현하기 위한 고객배가운동 실천과 나눔의 손잡기 운동 전개에 지사장님들의 적극 활동을 부탁드립니다.